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7월 집중호우 재난대응 결과 설명회 개최

박보성 기자 | 승인 2025.08.14 18:10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재난대응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당시 상황과 예당저수지 관리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민과 언론의 이해를 돕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순보 지사장은 이번 호우가 "유례없는 '500년 빈도 극한 호우'였다"고 강조하며, 예산군에 평균 434mm의 강수량이 기록되었고,

특히 덕산 지역은 7월 17일 시간당 90mm, 3시간 동안 232mm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삼교천의 계획홍수량 설계 기준인 100년 빈도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예산지사는 일부에서 제기된 '예당저수지 사전 방류 미흡' 주장에 대해, 호우 발생 전 홍수기 관리 수위인 78%보다 훨씬 낮은 56.4%까지 저수율을 낮추는 선제적인 사전 방류를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홍수 조절 용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축사 침수 등의 피해가 예당저수지 방류로 인한 것이라는 오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했다. 지곡천 제방 범람 시점인 7월 17일 새벽은 예당저수지의 방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기 약 3시간 전이었으며, 당시 삼교호 수위도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따라서 축사 침수를 포함한 피해는 저수지 방류로 인한 역류가 아닌, 극한 호우로 인한 지방 하천(지곡천, 효교천, 성리천)의 범람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순보 지사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 복구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지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설명회를 마쳤다.

/예산=박보성기자